

안전을 누리고
서울을 즐기다

2017. 노사합동 국외연수 결과 보고서

2017. 6



목 차

I 연수개요

1

II 주요 연수내용

3

- ◆ 세이프코 필드(SAFECO FIELD)
 - ◆ 브리티쉬 콜롬비아 노동관계위원회(LRB)
 - ◆ 웰스 그레이 주립공원(Wells Gray Provincial Park)
 - ◆ 밴프 국립공원(Banff National Park)
 - ◆ 스탠리 파크(Stanley Park)
 - ◆ 빅토리아 섬 (Victoria Island)
-

III 연수결과 토론(시사점 및 소감)

22

I

연수 개요

연수목적

- 선진 노사문화 및 근로환경 체험
- 대표노조 및 소수노조와의 합동연수를 통한 노사간 및 노노간 상호 이해의 증진과 이를 통한 협력적인 노사문화 구축
- 선진국의 공단사업 연관 시설물 견학

연수기간 : 2017. 5. 29(월) ~ 6. 6(화), 7박9일

대상국가 : 캐나다(밴쿠버, 벨마운트, 밴프, 빅토리아) 및 미국(시애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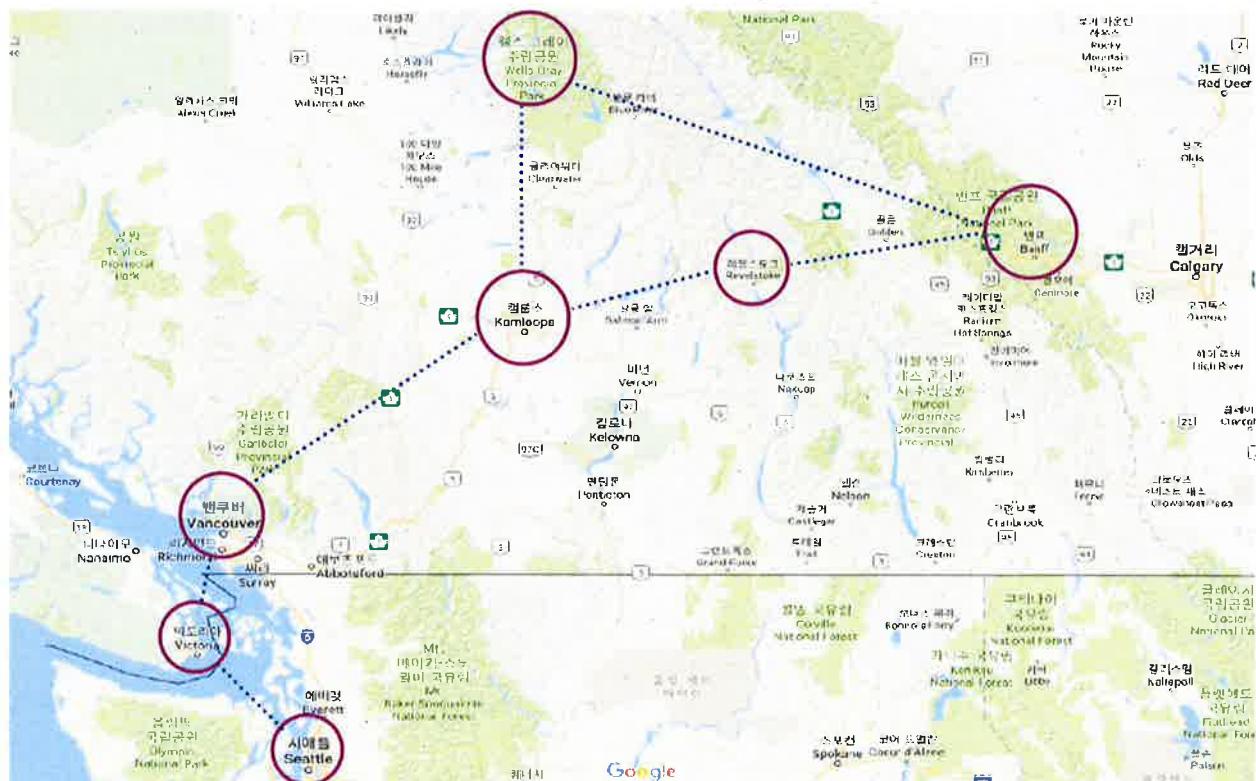
연수인원 : 총 8명 (사측 3명, 노측 5명)

참여인원별 수행업무

성 명	담당업무	주요 수행 업무
	인사처 총괄	연수팀 인솔 및 총괄, 방문기관 협력 방안 협의
	노무 담당	기관설외 및 일정조정, 노사분쟁 조정사례 조사
	인사 담당	인사관리 주요 혁신사례 및 적용 방안 조사
1노조 위원장		노사관계 주요 개혁 배경 및 내용 조사
2노조 위원장		방문국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지표조사
1노조 본사지부장		공단사업 연관 시설물 관리현황 및 우수사례 조사
1노조 교통지부장		노사관리 우수사례 및 적용 방안 조사
1노조 조직국장		방문국 노동환경 및 노사문화 파악

연수 주요일정

일자별	출발지	도착지	세부일정 및 비고
5.29(월)	인천	시애틀	▷ 인천 출발 → 시애틀 도착
	시애틀		▷ SAFECO FIELD(야구장) 견학
5.30(화)	시애틀		▷ Labour Relations Board British Columbia(브리티시 콜롬비아 노동관계 위원회) 방문
	⇒	밴쿠버	
5.31(수)	밴쿠버		▷ 웰스 그레이 주립공원 견학
	⇒	벨마운트	
6.1(목)	벨마운트		▷ 콜롬비아 대빙원 및 특수 설상차 시설 견학
	⇒	밴프	
6.2(금)	밴프		▷ 밴프 국립공원 견학
	⇒	레벨스톡	
6.3(토)	레벨스톡		▷ 스탠리 파크 견학
	⇒	밴쿠버	
6.4(일)	빅토리아		▷ 빅토리아 주의사당 방문, 부챠드공원 견학
6.5(월) ~6.6(화)	밴쿠버	시애틀	▷ 시애틀 출발 → 인천 도착
	시애틀	인천	



미국

5/29

월

15:00

시애틀

세이프코 필드(SAFECO FIELD)

11250 First Avenue South Seattle, WA 98134

Tel : +1 206-346-4000

FanCare@Mariners.com

 시설소개 (현황, 역사 등)

- 세이프코 필드(Safeco Field)는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에 있는 야구장이다. 미국 메이저 리그 아메리칸리그에 소속된 프로야구팀 시애틀 매리너스의 홈구장으로 1999년 6월 15일 개장했다. 돔구장이지만 지붕이 개폐식이어서 천연 잔디를 쓰고, 시애틀의 기후 상 흐리거나 비가 올 때만 지붕을 닫는다. 좌석수는 47,943명.
- 시애틀의 신축구장 프로젝트는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시애틀은 1976년에 개장한 폐쇄식 돔구장 킹돔을 대체할 구장이 하루 빨리 필요했다. 과거 적은 비용으로 급조되다시피 나타났던 킹돔은 모든 면에 열악했고, 그 결과 선수들과 관중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구장이었다. 때문에 시애틀은 좋은 환경에서 플레이하고 관전할 수 있는 새 구장 건설이 시급했다. 무엇보다 매리너스 구단은 새 구장이 지어지지 않으면 다른 도시로 떠날 수도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던 시기였기에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이 않았다. 결국 시애틀과 시민들은 최첨단 시설과 함께 하는 새 구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문제는 자금이었다. 때문에 새 구장이 위치하게 될 시애틀의 킹 카운티(King County) 시는 새 구장 건설을 위해 세일즈 텍스는 물론 거의 모든 공공 서비스 세금을 인상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마침내 법안은 워싱턴주의회의의 승인을 받았고, 그 뒤부터 새 구장 건설은 탄력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건축 비용은 약 4억 달러 정도를 예상했는데 아무리 특별 세금인상과 펀딩으로 새 구장을

짓는다고 해도 시 재정이 불안해질 수 있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했다. 급기야 매리너스 구단은 새 구장이 없다면 팀의 매각 또는 다른 도시로 떠날 것이라는 엄포로 맞대응 했다. 하지만 마지막에 자신들도 1억 5천만달러 정도의 새 구장 건축비용에 투자하며 킹 카운티시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완공될 수 있었다.

□ 방문 사진



<외야 좌측 출입구>



<잔디 및 그라운드 정비>



<구단 용품 판매점>

□ 시사점 및 착안사항

- ◆ 세이프코 필드 바로 옆에는 NFL 서부지구 시애틀 시혹스가 홈경기장으로 사용하는 “센츄리링크 필드”가 위치해 있었다. 두 개의 경기가 동시에 열릴 경우 10만명 가량의 관중들이 다운타운으로 유입되는 관계로 교통체증 등 혼란을 막기 위해 대중교통을 제외하고 경기장 반경 1km 내의 차량을 통제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음.
- ◆ 세이프코 필드의 지붕은 열고 닫을 수 있는 개폐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돔경기장 임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천연잔디가 깔려있었으며, 완전히 닫혀져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열리는데 까지는 약 10분이 걸리지만 열고 닫히는데 있어서 경기에 집중하는 관중들의 경우 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소음이 적다고 한다.
- ◆ 투자자문회사인 세이프코(Safeco)와 20년간 매년 180만 달러의 구장 명칭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시애틀 매리너스 구단은 2019년까지 20년의 구장 사용권 계약을 체결함.
- ◆ 1,010석 규모의 장애인석과 505석의 동행인석을 보장하고 있어 ‘장애인 지향적인 구장’으로 불리고 있음.

브리티시 콜롬비아 노동관계위원회 (Labour Relations Board British Columbia)

Suite 600, Oceanic Plaza, 1066 West Hastings Street, Vancouver, CA

Tel : +1 (604) 660-1300

Information@lrb.bc.ca

<기관 방문 사전 조사자료>

□ 캐나다의 노동관계법

- 역사 2차 대전 이전에 캐나다는 단체교섭을 규율하는 노동관계법이 거의 없었으나, 1935년 미국에서 와그너법이 제정되고, 이에 기하여 단체교섭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본격적인 규율과 함께 전국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NLRB)의 설치를 통하여 노사관계에 대한 소극적인 사법적 개입에 대신하여 행정위원회에 의한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입법은 캐나다에도 영향을 미쳐, 2차 세계대전 중 캐나다 연방정부가 선포한 긴급명령으로 유사한 제도가 캐나다에서도 도입되었다.
- 오늘날의 캐나다 노동법은 20세기 초 캐나다 연방 정부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된 초기의 노사정으로 구성된 강제적 분쟁해결 제도와 미국식의 의무적인 단체교섭법과의 결합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캐나다의 대부분의 노사관계위원회는 미국의 NLRB와는 달리 노사공익으로 이루어져 근로자측 대표와 사용자 측 대표가 노동관계의 분쟁해결에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었다. 일반 법원과 달리 노동관계위원회는 노사관계에 대한 효율적인 규율에 필요한 전문성(expertise), 신속성(speed), 경제성(economy)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 캐나다의 노동관계위원회

(1) 관할권

캐나다 각주의 노동관계법에서는 각 주의 노동관계위원회에 대해 단체교섭법의 전반적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고, 법에서 정한 권리와 책임을 실시하기 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노동관계위원회에 부여된 기본적인 업무는 아래와 같다.

- ① 근로자교섭대표에 대한 인준
- ②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complaints)에 대한 화해 또는 판정을 통한 처리 및 해결
- ③ 불법적인 파업, 직장폐쇄 및 다양한 상황에서 불법적인 피케팅에 관한 확인(declarations)과 지시(directions)의 발령(issuing)
- ④ 일부 주에서는(British Columbia, Manitoba, Ontario) 단체협약 하에서 발생하는 고충에 대한 중재
- ⑤ 작업의 분배에 관한 노동조합내부의 분쟁에 관한 지시의 발령

British Columbia 노동관계위원회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양자에 있어서 노동관계법의 모든 영역에 대해 배타적(exclusive) 관할권, 병합적(concurrent) 관할권 또는 감독적(supervisory)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British Columbia 노동관계위원회는 우리나라 노동위원회와 같이 조정부서(mediation division)를 내부에 두면서 조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관계사항에 대해 캐나다에서 가장 포괄적인 관할권을 가진 위원회이다. 민간부문 근로자와 공공부문 근로자 양자에 대한 규율을 모든 분쟁해결에 대한 책임과 함께 결부시킴으로써, 권한의 분산을 방지하고 집단적인 분쟁해결의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2) 구 성

캐나다 노동관계위원회의 대부분은 노사공익으로 구성되어 있다. Alberta주와 Nova Scotia 주에서는 정치적인 임명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관계위원회는 통상적으로 노사관계의 실제 상황에 대한 경험이 있는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Ontario 노동관계위원회는 위원장, 대체위원장(alternate chair), 다수의 상임 및 비상임 부위원장 등 공익을 대표하는 자와 노사의 이익을 각각 균등하게 대표하는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판정적 역할을 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그 권한 행사를 위하여 3명으로 구성된 패널을 구성한다.

(3) 위원의 지위

캐나다의 각 노동관계위원회 위원은 법관에서와 같은 종신직을 전제로 한 독립성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주 노동관계법에서는 부위원장과 위원에 대해 임기를 정하고 있다. 캐나다연방노동법전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들에 대해서는 5년 임기, 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3년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될 수 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해 노사관계에 있어서 경험과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른 직위나 보수를 받는 직을 보유하여서는 아니되며, 비상임 부위원장과 위원들은 그 직무와 상충되는 다른 고용이나 보수를 받는 직책을 가져서는 안된다.

(4) 주요 특징

현장서비스(field services) 또는 화해활동(settlement activity)은 캐나다의 모든 노동관계위원회 활동에서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분쟁의 화해는 단체교섭관계의 특수한 성격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계속적인 관계에서 함께 나아 가야 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대결 대신에 화해에 의한 타협이 관계의 속성상 더욱 적합하다. 분쟁에 대한 화해는 당사자들로 하여금 특정한 사실관계 상황에 대한 적합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즉 심판 내지 판정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당사자들에 대한 체면을 고려한 타협책의 제시 등 다양한 해결방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일반적으로 화해 제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분쟁을 화해에 의해 해결하는 것은 노동위원회와 같은 노동분쟁의 해결기관이 전제하는 “신속성, 비공식성 및 경제성” 기준에 부합한다 할 것이며, 화해는 분쟁을 해결하는 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방법이라는 점에 의문이 없을 것이다.

캐나다 각 주에서 노동관계위원회는 그 관할권 내에서 발생한 쟁점에 관한 결정에 대한 1차적인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쟁점에 관한 노동관계위원회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최종적이며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기관 방문결과 >

□ 방문개요

○ 일 시 : 2017. 5. 30(화), 14:00 ~ 17:00

○ 참 석 : (공단) 연수단 8명

(LRB) 2명 -

(INFORMATION OFFICER)

(SPECIAL INVESTIGATING OFFICER)

○ 주요내용 : LRM 및 공단 소개, 캐나다 노동관련 제도 및 현황 안내, 질의응답 등



【 주요 질의응답 (요약) 】

- 공단 : 브리티시 콜롬비아(BC) Labour Relations Board(LRB)가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LRB : BC LRB(노동관계위원회)는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노조화된 사업장과 관련된 고용 및 노사 관계 문제를 중재하는 행정기관입니다.
- 공단 : 노조화된 사업장과 관련된 중재가 업무라고 하시면,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은 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얘기 인가요?
- LRB : 그렇습니다. LRB에서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조합원과 고용주간의 문제에 대한 중재를 기본 업무로 합니다.
- 공단 : 그렇다면, 노동조합이 없는 조직에서 발생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 LRB :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의 노동问题是 고용기준법 (Employment Standard Act)으로 보호합니다.

【 주요 질의응답 (요약) 】

고용기준법에서는 노동조합에 속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대한 최소한의 고용 기준을 제정합니다. 이 법에서는 최저임금, 근무시간과 초과근무, 휴일, 고용 종료 통지, 육아휴직 및 임금지불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법에서는 인종, 피부색, 출신지, 정치적 신념, 종교, 혼인상태, 장애, 성별에 근거한 고용 차별 금지 등 다양한 직업 관련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 공단 : 그렇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의 노동조건에는 차이가 없나요?
- LRB : 아닙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의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이 훨씬 좋습니다.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 보다 회사에서 더 조건이 좋은 연금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국민연금인 CPP (Canada Pension Plan)를 납부하는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의 경우 본인 소득에 해당 되는 연금 부담률 보다 높은 금액을 사측에서 납부해 주는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비조합원 노동자의 경우 사측에서 납부액의 30%를 부담한다고 하면, 조합원 노동자의 경우는 사측 부담률이 7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공단 : 급여 외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나요?
- LRB : 법에서는 최소한의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는 쉽게 해고를 당합니다. 이곳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는 이민자가 많은데 영어 소통 능력이 부족해 해고되도 노조에 가입되지 않아 도움을 받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 공단 :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하는 일이 어려운가요?
- LRB : 직원 숫자가 적은 회사에서는 간혹 불이익을 걱정해 회사 눈치를 보느라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 주요 질의응답 (요약) 】

- 공단 :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어떻습니까?
- LRB : 이곳 브리티시 콜럼비아주의 경우 노조 가입률이 30% 정도 됩니다. 캐나다의 다른 주들은 더 낮은 편입니다. 최근에는 노조 가입률이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원목 수출 저조 등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곳은 자연환경은 좋은데 일자리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일자리가 맥도널드 같은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동조합 가입률이 낮습니다. 큰 사업체의 경우 대부분 노조에 가입되어 있고, 공기업이나 市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거의 100%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경우 노동조합 가입인원 중 50% 정도는 여성 근로자입니다. 건강보험, 교육, 공무원 등 공공서비스 부분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많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 분야의 여성 근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 공단 : 그럼 두분께서도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계신가요?
- LRB : 아니요. 저희는 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문제를 중재하는 입장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 중에서 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저희들 밖에 없을 것 같네요.
- 공단 : 노동관계위원회에는 어떤 부서들이 있나요?
- LRB : 크게 보면 노동조합의 인준을 하는 곳, 노사관계를 관리하는 곳, 파업과 같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재를 하는 곳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공단 : 노동조합의 인준이란 무엇인가요?
- LRB : 사업장에서 노동자를 대표하여 사용자와 교섭을 할 노동조합을 인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위사업별로 대표권을 가진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45%이상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교섭권을 가진 노동조합으로 인준을 해줍니다.

【 주요 질의응답 (요약) 】

노동조합의 인준기준은 주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BC(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경우 45%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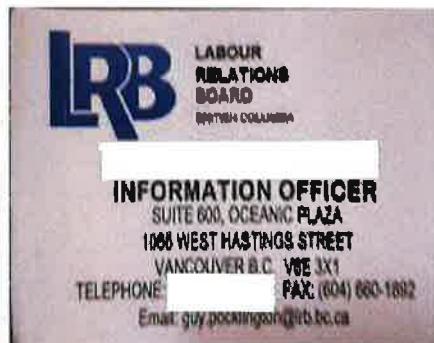
- 공단 : 사업장내에 복수의 노동조합에 대해 인준을 하지는 않나요?
- LRB : 복수노조에 대한 인준은 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내에 다른 직종이 있는 경우 직종별로 노동조합을 인준해 주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는 간호사와 나머지 직종들로 구분해 별로도 인준을 하기도 합니다. 학교의 경우는 교사와 나머지 행정 직원 등으로 구분해 인준을 합니다만 같은 직종에 대해서는 복수노조를 인준하지 않습니다.
- 공단 : 가장 많이 발생하는 중재 사건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LRB : 주로 조합원에 대한 해고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측에서 인정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한 인준 문제들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 공단 : 가장 최근에 발생한 노사간 분쟁 상황 중 기억나시는 것이 있으시다면?
- LRB : 얼마전에 학교 선생님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 공단 : 한국에서는 교사의 파업은 보기 힘든 일인데요.
- LRB : 여기서는 자주 있는 일입니다.
- 공단 : 교사가 파업한다면 어떤 이유인가요?
- LRB : 복합적인 요인입니다. 급여문제도 있지만 학급당 학생수와 같은 사항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 공단 : 노동관계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법원의 판결과 같이 강제력이 있나요?
- LRB : 저희의 중재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재안을 거부하는 경우 경찰의 개입이나 법적인 문제가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비공식적이지만 강력한 구속력이 있습니다.

【 주요 질의응답 (요약) 】

- 공단 : 한국에서는 조정절차에서 조정안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데 BC주의 노동관계 위원회의 중재안에는 강력한 구속력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 LRB :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중재안의 95%이상이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 냅니다. 조직의 존재 가치가 확실하고 오랜 기간 전문기관으로 쌓아온 전문성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조정안에 대한 수용률이 높습니다.
- 공단 : 마지막으로 노사간 이견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한마디 조언을 주신다면요?
- LRB : 부차적인 사항보다는 메인 이슈에 집중하여 양측 상황을 고려해 협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시사점 및 착안사항

- ◆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역할과 사측의 이해가 중요함
- ◆ 노사간 이견이 생겼을 경우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여 서로의 입장을 고려한 협상이 중요
- ◆ 복수노동조합의 상황에서는 노동조합간의 관계 설정이 중요



<단체 기념사진>

<LRB 관계자 명함>

웰스 그레이 주립공원 (Wells Gray Provincial Park)

Thompson-Nicola A, BC, CA

info@wellsgraypark.info

Tel : +1 250-674-3334

- 웰스 그레이 주립공원은 캐나다에서 북쪽으로 120km 떨어진 약 54만 헥타르에 걸친 광대한 공원이다. 과거 유럽인들이 북미에 자리 잡기 전에는 원주민들의 귀중한 사냥지 였으나 이후 농장지로 쓰이다가 1939년 주립 공원으로 지정 되었다. 입구에서 약 70km 들어간 곳에 연결되어 있는 2개의 빙하호 클리어 워터호와 아자르호 주변에는 수령 500년 이상 된 원시림이 무성하고, 흑곰과 무스 등이 서식하고 있다. 조류 219 종, 포유류 50종이 서식하고 있다.
- 이 중 랍슨 마운틴은 해발 3,954m로 캐나다 로키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내에 속하고 있으면서 알버타의 재스퍼 국립공원과 접경을 마주하고 있고, 웅장한 만년설 아래로 깎여 나가 층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 아찔한 광경을 연출한다.
- 스파햇 폭포는 말그대로 목욕모자 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높이 73미터, 폭 9미터의 웅장한 폭포이며, 벨마운트로 가는 길목에 있어 로키의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광경 중의 하나이다.



<랍슨 마운틴>



<스파햇 폭포>



<도로변 야생 곰 가족>

밴프 국립공원 (Banff National Park)

Improvement District No.9, AB T0L, CA

banff.vrc@pc.gc.ca

Tel : +1 403.762.1550

□ 밴프 국립공원 소개

- 밴프 국립공원은 캐나다 최초의 국립공원이자 가장 오래된 국립공원으로 1885년에 설립되었으며, 캐나다 로키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이다. 1883년 2명의 철도 노동자들이 캐나다 로키 경사면에서 천연 온천을 발견하면서 공원이 탄생했다고 전해지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다.
- 앨버타 주에 있는 로키 산맥의 동쪽 가장자리를 따라 쭉 뻗은 수많은 호수와 산, 빙하의 공원으로 산악 지형은 4,500만 년에서 1억 2,000만 년 전에 형성되었고 공원의 북쪽에는 애머리 산과 같은 장엄한 봉우리들이 자리 잡고 있다.
- 북쪽으로 가면 콜롬비아 대빙원이 나오는데,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빙원이며, 이 빙원은 북극해, 대서양과 태평양으로 흐르는 강의 발원지이다.
- 국립공원 면적 : 6,680km² / 콜롬비아 대빙원 면적 : 325km²

□ 밴프 국립공원 견학

(1) 콜롬비아 대빙원 (아사바스카 빙하 체험)

- 아사바스카 빙하(Athabasca Glacier)는 밴프 국립공원과 야스퍼 국립공원에 걸쳐 형성된 콜롬비아 대빙원에서 발원하는 8개의 빙하 중 하나로 길이가 6Km, 폭이 300m, 높이 두께가 90~300m인 빙하이다. 그러나 100년 전보다 지금은 1.5km 정도 녹아서 그 길이가 짧아졌다고 하며, 겨울에 쌓이는 적설량보다 여름에 녹는 양이

더 많아서 점차 그 면적이 줄어가고 있다. 빙하에 오르기 위해서는 설상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바퀴 하나가 사람크기만한 거대한 크기다. 전에는 이보다 작은 궤도가 달린 설상차를 사용했는데 궤도가 빙하를 파손시킨다는 이유로 한 대 가격이 무려 20억원이나 하는 설상차로 바꾸었다고 한다.



(2) 레이크 루이스

○ 알버타 주 로키 산맥의 밴프 국립공원에 위치한 레이크 루이스는 세계 10대 절경 중 하나이다. 그 둘레만도 2,400미터에 달하는 기록적인 크기의 호수로, 본래 이름은 '에메랄드 레이크'였으나,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딸 '루이스 공주'가 방문한 이후로 '루이스 호수'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맑은 날씨에 옥색(에메랄드) 빛을 띠는데 이 호수의 물속에 함유된 석회질 성분과 햇빛의 조화로 인한 현상이라고 한다. 일본의 음악가 유키 구라모토의 '레이크 루이즈'라는 제목의 음악은 루이스 호수를 본 음악가가 얼마나 이 호수의 아름다움에 반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3) 보우 폭포

- 밴프 스프링스 호텔 아래에 위치해있는 보우 폭포는 높은 줄기의 폭포가 아니라 낮은 높이에서 떨어지는 폭포이다. 그러나 높이와는 달리 거센 물살로 그 소리만큼은 우렁차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마릴린 먼로가 주연한 영화 "돌아오지 않은 강 (The River of no return)의 배경으로도 유명하다. 겨울기간에는 상대적으로 그 소리가 작지만 봄에는 보우 글레이셔로부터 녹은 눈이 흘러내려와 거대한 장관의 폭포의 모습을 연출 한다.



(4) 설퍼산(Mt. Sulphur)

- 밴프시를 둘러싸고 있는 해발 2,285m 높이의 설퍼산은 곤돌라를 이용해 8분만에 정상에 올라 갈수 있다. 정상까지의 장관은 말로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낸다. 설퍼산 정상에는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2개의 레스토랑과 기념품점, 스낵바 등이 마련되어 있다. 전망대에서는 밴프 시내와 장엄한 록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또한 설퍼산 정상에는 1903년 지어진 기상 관측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스탠리 파크(Stanley Park)

Vancouver Board of Park and Recreation 2099 Beach Ave. Vancouver

Tel : +1 604-681-6728

□ 공원 현황 및 역사



- 밴쿠버 다운타운의 서쪽 반도에 위치한 도시공원으로 둘레가 약 10km, 면적이 1,000 acre에 달하며 뉴욕의 센트럴 파크보다 규모가 크다.
- 1859년 미국과의 전쟁을 대비한 군사기지로 이용하다가 1888년 밴쿠버 시민들을 위해 공원을 개방하면서 당시의 총독인 스탠리 경의 이름을 따서 스탠리파크라고 지어졌다.
- 도시 공원이지만 인공적으로 조성된 공원이 아닌 원시림 공원으로 숲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80km에 이르는 원시림이 우거진 산책로를 볼 수 있으며, 태평양을 마주하고 있는 바다 산책로에서는 조깅이나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을 볼 수 있고, 수족관, 미니어처 철도, 토템폴 공원 같은 볼거리 많다.

□ 시사점 및 착안사항

◆ “스탠리 파크” 운영 · 관리 … 민관협력의 성공적 모델

- 관리주체 : 밴쿠버 공원휴양위원회 + 스탠리파크 환경협회(SPES) ▷ 공공주도+민간협력 모델

※ 밴쿠버 공원휴양위원회 : 스탠리파크를 포함, 220개의 공원과 관련시설 관리하며 스탠리파크 환경협회(SPES)는 생태환경관련 프로그램 운영

- 관리인력 : 공원위원회 스탠리 구역 300여명(위원회 사무국 12), SPES 59명(이사회 14, 사무국 45) ※ 자원봉사자 1,800여명

• 공원운영관리 재원 특성

- 밴쿠버 공원휴양위원회는 공원의 모든 시설에 대한 개발 및 운영을 하며 공원운영에 대한 모든 재정의 자립을 원칙으로 토지 및 건물을 활용한 수익사업과 기업자본, 대출 등을 통해 공원조성 자금 조달



◆ “스탠리 파크” 자전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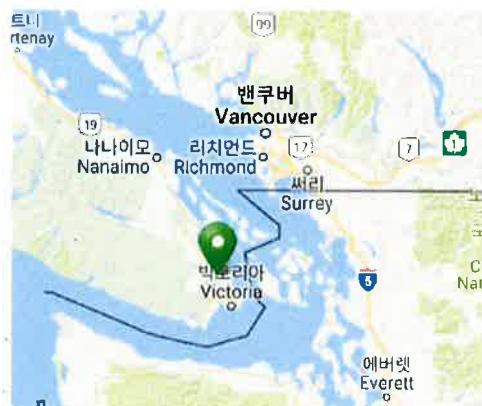
- 스테이션마다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 안전사고 예방과 위생을 고려한 헬멧 및 1회용 라이너 비치



빅토리아 섬 (Victoria Island)

□ 빅토리아 섬 소개

○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주도인 빅토리아는 밴쿠버 섬 남동단에 위치하며 환드퓨카 해협을 내려다보고 있다. 세계에서 8번째,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다. 면적은 217,291 km²로 한반도 면적과 비슷한데 인구는 1,875명이다.



○ 영국적 특징이 두드러지며, 1848년부터 밴쿠버 섬 식민지의 수도가 되었다가 1868년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행정 중심지가 되었다. 이후 빅토리아는 온화한 기후로 유명한 관광 휴양지가 되었고 현재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상업과 유통 중심지가 되었다. 또한 해군 기지와 조선소가 있는 태평양 해안의 주요 항구이기도 해 항공 및 선박 운항으로 캐나다 본토 및 미국과 연결되며 섬의 다른 지역과는 도로와 철도로 연결되고 있다.

○ 1월 평균 온도가 6.9도, 7월은 21.9도 정도의 다른 캐나다의 도시들보다 훨씬 따뜻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서 은퇴한 노인들이 노후를 편하게 살기 위하여 찾아드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인구의 4분의 1 가량이 노인층이며, 나머지 인구는 주로 관광업에 종사하거나 주 정부와 관련된 관공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 빅토리아 섬 견학

(1) 부차드 가든

○ 부챠드 가든(The Butchart Gardens)은 B.C.주의 수도인 Victoria시를 방문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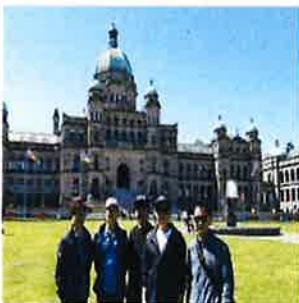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리는 유명한 곳이다. 빅토리아 항으로부터 북쪽으로 21km 지점에 위치한 부챠드 가든은 1900년대 초 시멘트 공장의 석회암 채굴장이던 곳을 부챠드 부부가 세계의 꽃과 나무를 모아 테마별 정원으로 탈바꿈 시킨 곳이다. 총 넓이가 22만m²에 달하며, 깊이 파인 땅을 자연 그대로 디자인한 선큰가든 (Sunken Gardens), 로즈 가든, 재퍼니즈 가든, 별 연못(Star Pond), 이탈리언 가든으로 나누어져 있다. 부챠드 가든에서 가장 인기 있는 썬큰 가든(Sunken Garden)은 석회석을 채굴하며 생긴 움푹 파인 분지로 평소에는 담쟁이 넝쿨과 폭포, 다양한 나무들로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정원을 다 둘러보며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데 약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2)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의사당

-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사당은 1897년에 완공된 빅토리아를 대표하는 건물이다. 당시 약관 25세의 건축가 Rrances Matuson Rattenbury가 건물설계 현상공모에 당선되어 의사당 건물이 만들어졌다. 3,300개 이상의 작은 등이 건물의 윤곽을 따라 촘촘히 빛나고 있는데 의사당 건물이 개장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아름다운 자태는 100년 가까이 빅토리아의 상징물이 되고 있으며 특히 야경이 일품이다.
- 의사당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5헥타르 규모의 정원에는 분수대와 꽃밭, 조각상들이 자리잡고 있어 산책을 하며 감상하기에 그만이다. 1973년 재단장 작업이 시작되어 50m높이의 중앙 돔에 George Vancouver 선장의 입상이 세워졌으며 스테인드

글래스를 설치하는 등의 대대적인 내부수리도 있었다. 10년에 걸친 대 공사 후 의
사당은 더욱 새롭고 웅장한 모습으로 태어나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 의사당>



<요트 선착장>



<한국전쟁 참전기념비>



<Mile 0 Point>

□ 빅토리아 “Bike to Work Week” 행사 참여

◆ Bike to Work Week

- “Bike to Work Week Victoria”는 브리티시 콜롬비아 빅토리아 주 전역에서 매년 5월 말 개최되는 행사로 자전거 통근을 장려하기 위한 행사이다. 1995년 Victoria에서 시작되어 BC주의 다른 지역까지 확대되었으며, “Bike to Work BC Society”라는 법적 단체(조직)까지 구성되었다. 행사가 시작된 이후 참여자는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매년 7,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다고 한다.

→ 방문 당일, “Bike to Work Week”의 주말을 맞아

도심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다운타운의 주요 도로를 모두 통제하고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도심 한복판을 가로 질러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라이딩을 하고 있었다. 관광객으로서 교통체증과 주차에 대한 불편은 있었으나, 자전거 통근을 장려하기 위한 행사 취지에 적극 공감 되면서, 서울에서도 공공 자전거를 확대하고 있듯이 이와 유사한 행사를 기획해 본다면 많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다.



III

연수결과 토론(시사점 및 소감)

◆ 일 시 : 2017. 6. 4(일), 16:00 ~ 18:00

◆ 장 소 : 카페 몬스터 (BC주 Surrey)

◆ 주요 토론내용

- 연수 소감 및 연수 중 공단 도입 착안사항 공유
- 노사협력 증진 및 상호 발전 방안 모색 등



□ 선진국의 복지정책

○ 미국과 캐나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과거 이민하고 싶은 나라 1, 2위로 가장 친숙하게 알려진 북아메리카 선진국이다. 그 중에서도 캐나다는 살기 좋은 곳으로 유명하다. 미국처럼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이지만 스웨덴처럼 북유럽 수준의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노동이사회, 노동시간단축 등과 관련하여 법 제도, 정책 등에 있어서 가장 많은 사례를 접하게 되는 나라가 독일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복지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사례와 정책을 비교하는 나라가 북유럽 스웨덴, 호주, 그리고 북아메리카의 캐나다이다. 세 나라 모두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시장경제체제이며 인구수 대비 국토 면적이 상당히 넓고 자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스웨덴은 유럽 특유의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활동과 정치적 역량으로 사회보험과 보편적 급여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하였고, 호주와 캐나다는 미국과 비슷한 시장경제체제 위주의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캐나다는 미국과 스웨덴의 중간적인 입장에서 공공부조 뿐만 아니라 보편적 급여도 함께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따라서 캐나다 노동자들도 스웨덴 만큼 보편적 복지제도 혜택을 위해 비교적 많은 세금을 지불하게 된다.

- 이번 미국 시애틀과 캐나다 밴쿠버를 오가며 시민들의 표정과 일상생활을 보면서 미국과 캐나다의 일상을 크게 구분하기 어려웠고 별개의 나라라고도 생각하기 어렵게 비슷하게 느껴졌다. 아마도 그 만큼 캐나다의 시장경제체제와 복지제도가 거부감이 없이 잘 정착되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캐나다는 스웨덴처럼 노동자들의 임금 중 약 50% 내외가 세금으로 부과되고 대신 의료와 교육 등이 무상으로 보장되는 나라이다. 향후 우리나라로 스웨덴이나 캐나다와 같이 복지제도 향상을 지향하고 있는데 캐나다 등을 모델로 삼아 시장경제체제에서 최대한 거부감이 없고 또한 모든 국민이 형평성에 맞춰 보편적 복지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국가의 복지제도 정책 등을 연구해 나아 가야 할 것이다.

□ BC 주의 노사분규

- BC주의 고용과 작업장 노조에 관련된 문제를 중재하는 조정위원회를 방문결과,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나라와 달리 캐나다에서는 국공립학교의 선생님 노사분규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2015년 여름 밴쿠버에서는 공립학교 선생님들의 집단 파업이 있었고 교사노조가 파업을 결정함에 따라 주 공립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은 정규학교 수업을 거부했다고 한다. 파업은 3개월 정도 지속되었고 파업은 평화적으로 피켓 시위를 하였으며, 학부모님들은 파업에 격려를 해주는 한편, 경찰은 파업을 통제하거나 강제 진압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의 교원운동은 언제나 정권의 탄압을 받고 불법 단체로 간주 받았던 것과 너무도 다른 것이다. 밴쿠버 노사분규와 파업은 지극히 일상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사회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노사 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직업은 크게 노조가 있는 직업과 노조가 없는 직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당연히 노조가 있는 직업을 갖는 것이 근로자로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모든 사업장이 노조가입을 희망한다고 한다. 이번 연 수기간 내 선진국의 노동정책은 건강한 노동자 양성을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무한한 신뢰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되돌아 볼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 BC 주의 자동차 번호판

- BC주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자동차 구입 시 부과되는 세금(연방세 6%, 주세 6%)외에 매년 부과하는 자동차세가 없다고 한다. 다만, 자동차 책임보험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고, 사고 다발 운전자의 경우, 연 최대 1,000만원의 보험료가 산출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번호판에는 자동차 책임보험 유효기간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으며, 경찰들도 이를 단속한다고 한다. 자유자재의 아름다운 번호판 디자인은 부러운 점이다.



□ 대형차량(화물차, 버스 등) 운전자들의 의무 … 운전자 로그북 작성

- 연수기간 중 방문기관 혹은 견학 장소에 도착할 때마다 운전기사는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운전자 로그북이었다. 로그북이란 24시간을 4개의 칸으로 구분해서 차에서 떨어져 있는 시간, 차안에서 자거나 휴식을 취한 시간, 실 운전시간, 휴식시간, 상하차시간, 수리시간, 브레이크 체크 시간 등 운행 중에 발생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기록하는 것으로 미국, 캐나다에서는 대형차량 운전자들에게 의무인 사항이다. 허위 작성 또는 기준 일 최대 운전시간을 미준수하였을 때는 사고 보상도 불가하다고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버스, 트럭 운전기사들의 과중한 운행시간으로 졸음운전 등에 따른 대형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 국토 면적상 미국, 캐나다 만큼의 장시간, 장거리 운전은 없지만 안전운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적용하여 도입하는 것도 대형 교통사고의 예방책이 될 것이다.

